

# LG생명과학 주식 저가 공개매수!

## 현물출자방식 주식 맞교환 ... 대주주 지분만으로도 자회사 편입

LG그룹의 지주회사 LG가 7월2일 LG생명과학을 자회사로 편입시키기 위해 LG생명과학 주식 410만주를 공개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방법은 현물출자방식이며 매수기간은 7월24일부터 8월12일까지이다.

공개매수가 완료되면 LG는 LG생명과학 지분 28.9%를 추가 확보하고 기존 지분(1.1%)을 포함해 30% 이상을 가진 최대주주가 된다.

LG는 LG생명과학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을 대상으로 공개매수 신청을 받은 다음 LG 주식(보통주 신주)으로 바뀌는 방식을 채택했다.

LG생명과학 주식 매수 기준가격은 주당 4만4200원으로 정해졌다. 최근 1개월 평균주가와 1주일 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에 5%의 프리미엄을 얹어 결정한 것이다.

LG생명과학 주주들에게 바꿔줄 LG의 신주 발행가액은 7월16일 정해진다.

LG 관계자에 따르면, LG의 발행가액은 기준가격에다 10%를 할인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령 7월2일 기준 LG 주가인 9340원이 기준가격이 된다면 신주발행가액은 10% 할인된 8400원이 된다. 현재 가격이 유지된다면 LG생명과학 1주당 LG 주식 5주 가량을 받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LG생명과학의 공개매수는 대주주와 LG 간의 거래로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관측이다.

증권사들은 LG생명과학 적정주가를 6만원 선으로 제시하는 등 앞으로 주가상승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LG생명과학 일반 주주들이 LG 주식으로 교환할 필요성을 못 느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LG 관계자는 LG 신주발행가액에 대한 10% 할인을 감안하면 사실상 15%의 프리미엄을 인정한 것으로 설사 일반주주들이 공개매수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기존 대주주 지분만 넘겨받는 형태로 자회사 편입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LG생명과학은 LG그룹 창업주인 구씨와 허씨 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7/04>